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6월 정기임원회는 새교우환영회 관계로 다음 주에 모입니다.

2012년 상반기 새교우환영회가 예배 후 중고등부실에서 열립니다.

오늘 오후 특강 시간에 난민인권센터의 김성인 사무국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뭄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물을 아껴서 사용합시다.

2012 청파전교인여름수양회

일시 : 8월 2일(목) - 4일(토)

장소 : 홍천 팔열 중고등학교

식 당 봉 사 : 찬양대원

7/1 식 당 봉 사 : 김금순 박영신 이은정 서수진 박숙영 박영희 김종락

오늘설거지봉사 : 이준하 김세진 정운성 서효진

다음 주 설거지 : 최양순 이지훈 이민범 김영아

새 교 우 : 이주영(5남)

떡 대 접 : 박병구 김정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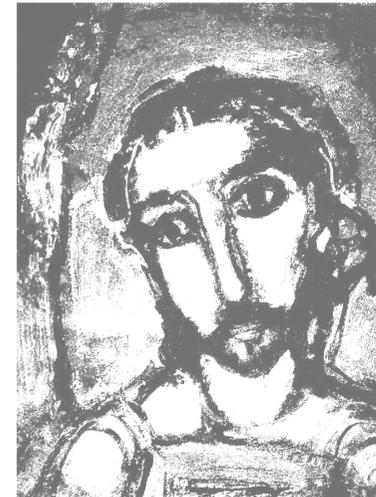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길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랜 세월 동안 국토의 허리가 잘린 채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히 여겨 주십시오. 어느 누구도 승리하지 못하고 모두가 큰 피해만을 입은 어리석은 전쟁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속히 평화와 통일의 날을 맞이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여러 가치와 이념이 충돌하는 이 세상에서 진리와 생명의 길을 선포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을 지켜 주십시오. 굽은 길을 곧게 하고, 낮은 곳을 높이며 높은 곳을 낮추려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시오. 뜨거운 길 위에서 외치는 그들의 목마른 외침에 정의와 사랑의 단비로 응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고숙이 김경연 김문주 김종락 박영신 김현주 김혜권 박재임 박숙영
 박영희 박옥순 박인혁 변재민 이소혜 안보혜 이봉옥 이용규 노지현
 이은실 이은자 이종배 장원호 박성희 정완수 김재광 조병익 조정연
 조병주 최재욱 이수정 한상익 정영선 허명선 허준호 무명2

감사헌금:

김대규 박경애 김성한 조영순 박화전 김행자 안효천 이해명 무명4

녹색꿈헌금:

김인석 이선화 김정진

생일감사헌금:

권혁순 배삼순 이인웅 이형석

장	혜	숙	백	혜	숙	조	순	덕	백	혜	숙
노	순	옥	박	성	희	박	미	영	김	미	순
최	희	영	최	경	미	교	회	회	서	원	국
장	영	숙	신	영	신	박	경	선	박	경	원
정	경	례	진	정	숙	박	옥	순	진	정	숙
박	홍	재	곽	권	희	백	묘	현	김	순	복
박	효	선	허	정	윤	홍	복	선	허	정	윤
이	순	정	김	금	순	홍	이	봉	강	순	배
이	형	숙	권	미	숙	김	재	광	이	형	숙
안	홍	숙	오	현	정	김	명	희	오	현	정
정	영	선	서	정	순	서	정	순	송	양	진
박	혜	경	조	향	미	박	혜	경	백	성	래
김	재	흥	오	자	영						
이	범	석	이	근	식						
손	성	현	곽	상	준						

마음으로 읽는 글

어린것

나희덕

어디서 나왔을까 깊은 산길/ 갓 태어난 듯한 다람쥐새끼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고 있다
 그 맑은 눈빛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고집할 수가 없다
 세상의 모든 어린것들은
 내 앞에 눈부신 꼬리를 쳐들고
 나를 어미라 부른다
 괜히 가슴이 저릿저릿한 게
 핑그르르 굳었던 젓이 돈다
 젓이 차올라 겨드랑이까지 쨍해오면
 지금쯤 내 어린것은
 얼마나 젓이 그리울까
 울면서 젓을 짜버리던 생각이 문득 난다
 도망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
 난만한 그 눈동자,
 너를 떠나서는 아무 태도 갈 수 없다고
 갈 수도 없다고
 나는 오르던 산길을 내려오고 만다
 하, 물웅덩이에는 무사한 송사리떼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훈련하며 사십시오. 전쟁은 죽음이요 평화는 생명입니다. 원수 갚음은 주께 맡기고 오로지 선한 일에 힘쓰며 사십시오.

아멘. 그가 먼저 머리 숙이기를 원하며 악한 감정을 풀지 않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복수하려는 마음, 되갚으려는 생각을 버리고 살겠습니다.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겠습니다. 함께 이루어야할 평화의 세상을 꿈꾸며 살겠습니다. 평화의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특강 : 난민인권에 대하여 김성인 사무국장(난민인권센터)	골로새서, 나를 깨우다! / 손성현 기도 : 구성실 장로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손성현 전도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장영숙 전도사	이성경 선생 김 극 집사

6월	영접위원	윤석철 김용진 김남종 오복순 박효선 강순배
	헌금위원	윤석철 정경례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단순하게 살기

1

공기, 물, 불, 햇볕과 같은 것들은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맘껏 즐기라고, 이 모든 축복들을 하느님께서 넉넉히 주셨거든요. 햇볕은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쬐고, 같은 공기를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함께 마십니다.

그러면 왜, 생명을 지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모두 함께 쓸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넉넉하게 만드셨는데, 돈은 그렇지 않을까요?

이유는 두 가집니다. 하나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고 다른 하나는 덕행의 문을 열기 위해서예요. 만약,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공기나 물 따위가 모두 함께 쓸 수 있을 만큼 풍족하지 않다면 욕심 많은 부자들이 그것들을 가난한 이들에게서 가져갈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돈을 쌓아두어야 만족하는 자들이 물이나 공기도 그렇게 하지 않을 리 없지요. 반면에, 돈이 어디에나 넘치도록 있으면 부자 쪽에서는 베푸는 기회를, 가난한 자 쪽에서는 감사하는 기회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2

부자들은 보통 가난한 사람을 물질적으로 약탈하지 않는 한 자기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자들의 죄는 그들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지 않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부자는 일종의 강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재물이 하느님한테서 오는 것이고 따라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렇다는 증거는 사방에 널려 있지요.

나무와 채소들이 생산해내는 신선한 열매들을 보십시오. 해마다 그토록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는 기름진 흙을 보세요. 우리에게 포도주를 제공하는 포도나무의 달콤한 포도알을 보십시오.

부자들은 열매와 곡식이 자라는 논과 밭을 자기네가 소유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씨앗을 싹 틔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느님이십니다. 자기 밭에서 나오는 소출을, 거기서 일한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궁핍한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는 것이 부자들의 임무입니다.

3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기억하십시오. 모든 인간이 공동의 조상을 모십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의 육신이 같은 물질로 되어 있지요. 귀족의 몸과 시골 농부의 몸 사이에 아무 다른 점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선을 행하여,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없는 사람들을 도와줄 때, 그 때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하나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같은 육신을 지니고 있기에, 가난한 이의 고통 배가 부자들에게 아픔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굶주린 이들의 배를 채워줌으로써만 진정될 수 있어요.

부자들이 자주 자선에 대하여 말하고 저들의 선한 의도를 표현하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부자들의 선한 의도는, 자기네가 가난한 자들과 하나인 줄 알고 있다는 뜻이니만큼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부자들로 하여금 자기네 말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설득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은 마땅히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에게 말할 기회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래야 합니다.